데스크탑

# 중복날의 염치

이연수
경제부장

삼복 더위 중 가장 덥다는 중복이다. 붐비는 삼계탕 가게 앞 간이의자에서 30여분을 기다린 끝에 입실에 성공. 고물가에 복날 세 번 중 한 번 이상은 먹기 어렵다는 '금계탕'을 먹었다.

## '런치플레이션' 푸념도 잠시

외식물가가 참 많이 오르긴 했다. 삼계탕 가격은 매년 1,000원씩 꾸준히 올랐다는데, 가격에 반비례해 닭 사이즈는 갈수록 작아지는 느낌이다. 그릇이 상대적으로 큰 탓이려니, 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나 서너 시간 후 푹 꺼지는 뱃 속에는 도리가 없다. 가격은 올랐는데 확실히 양은 줄었다.

A숯불갈비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동료도 비슷한 말을 전한다. 세 사람이 11만원을 지불했는데 배부르다는 느낌을 전혀 못받았다며 "돈 아깝다"라고 했다.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 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외식비가 오르면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더 비싸게 주고 먹어도 배가 덜 부르다"는 푸념이 일고 있다.

감당 안되는 외식비 뿐만 아니라 집밥도 사정은 비슷하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지만 제철 과일과 감자, 양파 등 과일 채소 코너를 몇 바퀴 돌며 들었다 놨다만 반복하다 결국은 내려놓은 경험들이 있을 터. '그냥 참자'다.

지난 1분기, 4인 가족 식비는 9.7%나 올라 두 자릿수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외식비는 무려 17.0% 올랐다. 기름값과 집세에 축산물, 외식비까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자 식비에 허덕이는 2030세대들은 편의점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거나, 도시락을 챙겨와 식대를 줄이려는 모습이다. 약속 안잡기나 '일주일에 최소 이틀 이상 하루 10원도 안쓰기-무지출 챌린지' 같은 유행은 고물가를 견디는 단적인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50만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를 이어가고 있는 김호연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에 나오는 5,200원 '참참참'(참깨라면, 참치김밥, 참이슬) 세트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다.

한 눈 팔지 않고 달려온 영업직 사원이자 쌍둥이 아빠인 경만은 매일 저녁 퇴근길 참새방앗간처럼 편의점에 들러 '참참참' 세트로 흙수저의 고단함과 분노를 달랜다. 쌍둥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며 그를 구박하던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아플 쌍둥이 딸들을 늘 가슴에 아프게 담고 사는 그다.

편의점 알바 독고씨로부터 "편의점에 오면 쌍둥이들이 1+1만 산다는, 아빠 힘들게 돈버니까 돈 아껴써야 한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으며 경만이 쏟아내는 눈물에서 우리 또한 마음편할 수 없다는 걸 느낀다. 편의점 참치캔 가격도 이제 8월부턴 10%씩 오른다니 5,200원 '참참참'도 가격 조정에 들어갈 지 모르겠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코로나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책이나 힐링 드라마에 열광하며 따뜻한 위안과 희망을 얻는가 보다.

## 수박 한 조각이라도 나눔을

ENA 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이나 '불편한 편의점'의 인기 저변엔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에 대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다.

등장인물의 진정성이 주는 감동과 내용 전반에 흐르는 따뜻함과 유쾌함은 우리를 울다 웃게 만든다. 시선을 돌려 이웃을 보듬고 챙겨보도록 마음의 염치를 깨우쳐 준다.

무더위의 한 가운데서 관계와 소통에 대해 생각한다.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는 책 속 이야기처럼 폭염 속 죽을만큼 힘들게 더위를 버티고 있는 주변 이웃은 없는지, 삼계탕, 아니 수박 한 조각이라도 한 접시 나눠 남은 여름, 함께 건강하게 날 일이다.

기고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사람이 먼저'

류혜정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회전 통행방법,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화,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등이 있다. 그 중,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다. 전국적으로 총 21개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지정되었고, 광산구 송정로 1번길이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운전자는 일반도로와는 다른 형태의 운전을 해야 한다.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호의무가 생기게 된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 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한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교통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40~50여년 전 네델란드, 독일,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인 19.3%의 배를 웃도는 34.9%이다. 차·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0%가까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도입과 보행자 보호 인식의 확산이 시급한 이유이다. 다행히도, 그 효과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서울, 대전, 부산 등에서 이뤄진 시범사업에서 차량 일시정지 등 양보비율이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 지정 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 친화적인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더불어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강조하는 바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 확대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지만, 실제 우리나라 도로에서의 보행자의 모습은 차와 사람이 만나면 차가 먼저 통행을 하거나, 보행자가 보행을 위해서 눈치를 보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계속적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심 내 주행속도가 줄어 답답하다는 등의 불평을 하는 운전자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고 최고의 정책임은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설

# 비대해진 경찰조직 통제 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경찰국이 다음달 2일 출범한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의 거부와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경찰국 신설은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이번 경찰제도 개선안은 법률 개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마련됐다. 경찰제도 개선안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이 주요 업무다. 사회적 논란의 핵심인 수사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것이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고 설명한다. 또 경찰 예산과 감찰, 징계 권한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그런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경찰과 야당 등에서는 권력에 의한 경찰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경찰이 권력의 시녀란 소리를 들은 바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상당수 사건의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고 있고, 오는 9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중요 범죄에 대한 독자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이양 받으며 14만 명에 달하는 공룡 조직이 수사·정보를 한 손에 거머쥐게 된다는 점에서 조직과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폐지돼 경찰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게 되자 그 기능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말해 행안부에 의한 경찰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정부가 국회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권력에 의한 경찰 장악 시도란 목소리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비롯해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답안지 유출 충격 대동고 내부 자정을

광주 대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에 몰래 침입해 교사들의 컴퓨터를 해킹, 기말고사 문제·답안지를 빼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말은 지난 11~13일 치러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한 학생이 4과목 답안지를 미리 확보해 시험을 쳤다는 의심이 든다는 제보가 시교육청에 접수된 지 하루만에 드러났다. 광주 대동고는 4년 전에도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된 전력이 있다.

답안지 유출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은 해당 학생이 시험이 끝나고 쓰레기통에 버린 쪽지를 확인해보니 해당 과목들의 답안과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시험이 끝날 때마다 쪽지를 찢어 휴지통에 버렸는데 시험 3일째 이를 수상히 여긴 한 학생이 증거를 확보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학생 2명으로부터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들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화면 내용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빼돌린 혐의를 확인했다.

학생들은 특정 과목을 노리고 늦은 밤 교무실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역대 적발된 고교 내신 성적 조작 부정행위 가운데 학생들이 정보기술을 활용해 교사들의 컴퓨터에 접근, 시험지를 빼낸 이례적인 범죄로 교육 관계자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동고 2학년 재학생 2명은 교사들이 퇴근한 심야 시간대 잠금장치가 해제된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잘하고 싶었다"는 게 범행 동기다. 대동고는 내신 불신을 초래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이 정확한 수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학교 측의 교무실과 교사들의 컴퓨터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비단 이번 기말고사에 국한한 문제인지, 2명만 연루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4년 전에 이은 이번 사건으로 학교 측의 구조적인 잘못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의 대규모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독자광장

# 산업스파이, 비상 걸린 국가경쟁력

흔히들 최첨단 기술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표현들 한다. 산업기술이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이 되면서 해외 유출범죄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 및 산업,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산업기술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관련이 있고 기업에도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때마침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사범 특별 단속을 전개해 지난 5월 말 기준 지난해 검거 인원보다 167% 증가한 9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69.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산업기술 유출(17.4%), 업무상 배임(13%) 순으로 많았는데 정작 문제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 또한 3건이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대기업 보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피해가 많았으며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한 기술 유출이 대다수라는 점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이들 범죄 수법의 예로는 경쟁업체 이직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군사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도면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 유형이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상당량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는 추세 속에 전문가들조차 양형 기준 대폭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자가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형량을 강화하는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에서도 평소 산업기술에 대해 비밀 수준으로 관리한다던지 산업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특정 권한 부여나 비밀번호를 수시 변경 설정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가름하는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기준 현실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마땅히 고려돼야 할 때이다. 물론 경찰의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말까지로 기간이 정해 있지만 단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경찰은 지속적으로 산업기술 유출범죄 단속에 나설 것이다. 경찰의 특별 단속 여부를 떠나 반도체 및 2차 전지, 조선산업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은 마땅히 보호돼야 하며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흠집이 발생해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다. 만약 지금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의심되거나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산업기술 유출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 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 | | | | | |
|---|---|---|---|---|---|
| 정치부 | (062) 720-1060 | 문화체육부 | (062) 720-1071 | 월간국 | (062) 720-1007 |
| 경제부 | (062) 720-1067 | 사진부 | (062) 720-1040 | 사업국 | (062) 720-1011,1099 |
| 사회부 | (062) 720-1050 | 기획탐사부 | (062) 720-1045~46 | 광고국 | (062) 720-1016~17 |
| 사회2부 | (062) 720-1043 | 편집부 | (062) 720-1073 | 관리국 | (062) 720-1012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

# 유엔군참전의 날에 관심 가졌으면

성창대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팀장

6·25 전쟁 초기 북한군의 파죽지세에 밀린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고, 우리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며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한반도에서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의 북한군 격퇴 참여를 결정했고, 1950년 7월 7일 유엔군이 창설돼 그 다음 날인 7월 8일 유엔군의 파견이 결정됐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던 절망의 순간에 유엔군이 파병되고 우리 국군과 연합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은 막을 내렸다.

72년 전 낯선 땅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하자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기꺼이 달려와 준 유엔참전국은 병력지원 16개국, 의료지원 6개국 등 총 22개국이며 참전 인원은 195만 명에 달한다. 유엔참전용사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조국을 떠나 이 곳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디뎠고 멀고 낯선 땅,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우리 국민을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쳤고, 그들의 용기와 투혼으로 우리는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자 2013년에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참전의 날로 제정했으며 6·25 전쟁 당시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국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란 슬로건 아래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정부기념행사가 거행된다.

대한민국 역사 속 큰 시련과 위기의 순간에는 195만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이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의 평화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약속'은 아닐지 생각해본다.

7월 27일 유엔군참전의 날을 맞아 낯설고 머나 먼 땅 대한민국에서 세계 자유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유엔참전용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분들에 대해 마음 속 깊이 감사 드리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져봤으면 한다.